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모빌리티' 대전환 속도

전기차 보급 전년 대비 40% 확대 전환지원금 신설 130만 추가 지원 '비공용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도

광양시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친환경 모빌리티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2030년 신차 등록 기준 무공해차 40% 보급' 목표에 발맞춰 올해 전기차 보급 사업을 전년 대비 약 40%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시는 올해 1차 보급 사업을 통해 전기 승용차 230대와 화물차 20대를 보급 완료했다.

시민들의 높은 수요로 1차 물량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2차 공

고를 통해 승용 150대와 화물 15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탄소 중립 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신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저탄소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충전 인프라 확충과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 전체의 에너지 생태계를 친환경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차량의 계층, 청년,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별도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에너지 충전 인프라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시는 지난 2023년 민간 투자 협약을 통해 공용 충



광양시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친환경 모빌리티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여수 관내 전기차 충전소 모습. (광양시 제공)

전시설 90기를 성공적으로 설치한 데 이어, 올해 5곳을 추가로 구축한다.

아울러 개인 주택이나 사업장에 충전 시설 설

치를 희망하는 시민에게는 1대당 최대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비공용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을 통해 일상 속 충전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안전'과 '질서'가 담보된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충전 시설의 지상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는 등 화재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동시에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탄소 저감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함께 시민들이 안심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충전 인프라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 대응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열 기자

“미래 동력 핵심사업에 집중” 보성군, 내년 예산 확보 ‘총력’

109억원 규모 4개 핵심 현안 건의 보성말차 가공시설 현대화 등 요청

보성군은 지역의 미래 지평을 바꿀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선제적인 국비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3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상철 보성군수 권한 대행은 최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과 정성원 농림해양 예산과장 등을 만나 국비 109억원 규모의 4개 핵심 현안 사업 지원을 집중 건의했다. <사진>

이번 방문은 보성군 주요 현안의 국가 재정 반영을 위한 사전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건의된 주요 사업은 ▲K-Tea 보성말차 가공 시설 현대화 ▲보성 국립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 ▲울포항 국가어항 건설 추진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이다.

이 권한대행은 우선 'K-Tea 보성말차 가공 시설 현대화'의 시급성을 역설하며, 노후 시설을 개편해 글로벌 수요에 맞는 고품질 말차 생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성 차 산업의 수출 경쟁



력 강화와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 거점이 될 울포항의 국가어항 지정과 시설설계 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인 여자만 벌교갯벌을 활용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설계비 반영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밖에 기후변화 대응 및 농·임업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국립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의 정책적 타당성도 함께 설명했다.

이상철 권한대행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여건이 어렵지만, 보성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들이 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민 기자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신규 항목 선정

고사리·두릅 등 차액 보전

곡성군이 농산물 가격 보전을 위해 가격안정기금 지원 품목을 확대한다.

30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지원 품목 확대 및 2026년도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군은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소득 작목인 블루베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올해는 임산물 육성 필요성에 따른 용역 검토를 거쳐 고사리와 두릅을 신규 품목으로 확정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이로써 쌀, 딸기, 멜론, 한우 등 기존 품목에 더해 한층 촘촘한 경영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군의 가격안정기금은 주요 농·축산물의 도매 시장 가격이 군이 고시한 최저가격의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핵심 제도다.

올해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가격을 엄격히 반영해 산정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원 품목 확대를 통해 판권 농사지는 더 많은 농가가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고흥군, 8개 읍·면 재생에너지 수요조사

기후부 주관...오는 4-15일까지

태양광·지열 등 융·복합 지원

고흥군이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30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사업은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비용의 최대 80%(국비 50%·지방비 30%)를 지원해 주는 핵심 에너지 복지 사업이다.

수요조사 대상 지역은 고흥읍을 비롯해 점암·영남·과역·남양·동강·대서·두원면 등 8개 읍·면이다.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3kW 태양광 기준 약 121만원의 자부담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후에는 가구당 매월 4만~5만원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건축물대장과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등을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주성학 기자

GS칼텍스, 창립 59주년 맞이 '안전 골목길' 조성

여수경찰·충무동 협력 벽부등 설치

GS칼텍스가 창립 59주년을 맞아 여수 지역 민·관과 손잡고 범죄 취약 지역의 환경을 한 단계 밝히는 '안전 골목길' 조성에 나섰다.

30일 GS칼텍스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 연등동 일대에서 여수경찰서, 충무동주민센터 등과 함

께 '아이 엠 유어 세이프티(I am your Safety): 안전 골목길' 벽화 조성 봉사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활동은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셉테드(CPTED) 기법이 적용됐다.

GS칼텍스 임직원과 경찰서 범죄예방단팀 등 40여명은 어둡고 낡은 골목길에 밝은 벽화를

그리고 환경 정화를 진행했다. 야간 가시성 확보를 위한 벽부등을 설치하며 실질적인 치안 강화 효과를 극대화했다.

장원석 여수경찰서장은 "민·관이 합심해 치안사각지대를 해소한 훌륭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성민 GS칼텍스 생산본부장은 "창립을 기념해 지역사회와 함께 뜻깊은 상생 활동을 펼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치안 취약지 개선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화순군 '일자리 우수기업' 발굴 행·재정 지원

7월10일까지 접수...9월 결과 발표

환경 개선금·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화순군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앞장선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해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7월 10일까지 지역 경제 활력을 견인할 '2026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천400만원의 고용환경 개선 자금이 직접 지원되며,

유효기간 2년의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대출 한도 확대 및 이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쓸쓸한 간접 혜택도 폭넓게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전남 지역 내에 본사나 주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으로, 화순 등 군(군) 단위 지역에서는 2-3개 기업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의 고용 실적을 기준으로 부여된

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일자리 증가율 5% 이상,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증가율 5% 이상 또는 5명 이상 증가,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고용이 늘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인증 사업이 지역 기업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고용 확대에 헌신해 온 우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장흥 수문항서 제철 키조개 맛보세요”

郡, 오늘 '정남진 키조개축제' 개최

장흥군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 청정 해역의 보물 창고인 키조개를 주제로 오감 만족 미식 축제를 선보인다.

30일 장흥군에 따르면 '제23회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가 5월 1-5일 5일간 안양면 수문항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사진>

지난 2003년 첫선을 보인 이 축제는 장흥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에서 자란 명품 키조개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으뜸 축제 자리매김했다.

봄철이 가장 맛있는 제철인 키조개는 곡식을 까불리는 '키(箕)'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타우린과 아연, 칼슘 등 미네랄이 풍부해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보양 해산물로 꼽힌다.

이번 축제장에서는 쫄깃한 관자와 소고기, 표고버섯이 어우러진 명품 장흥삼합은 물론 구이, 탕수육, 죽 등 키조개를 활용한 다채로운 요리가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키조개 까기·씻기 등 현장 체험과 어린이 문화 체험,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가요제 등 남녀노소 즐길 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장흥=노홍렬 기자



장흥군 관계자는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청정 수문항을 찾아 제철 키조개의 참맛과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렬 기자